협상 재개 기대, PPI 컨센 하회, 기술주 호재로 증시 상승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투자심리 개선세 뚜렷,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증시

- 미 증시는 DOW +0.66%, S&P500 +1.18%, NASDAQ +1.96% 상승. 임의소비재, 기술, 통신서비스 강세
- 지정학 긴장은 남아있으나, 휴전 기대와 유가 하락, 물가지표 안정이 투자심리 지지한 가운데, 기술주 개별 호재에 상승 흐름
- 모건스탠리 CIO 는 시장 저점은 이미 형성되었으며, 경기순환주로의 회귀가 관찰되고 있다고 코멘트. 하반기엔 상황이 보다 건설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
- 달러인덱스 97.9, 금+2.0%, 은 +5.3%

향후 관리 국면 전개 기대감에 국제유가 대폭 하락 WTI $92(-7.1%)

- 트럼프 인터뷰 발언 후, 미-이란 이르면 16 일 협상 재개 기대 확대. 미국은 이란의 영구적인 우라늄 농축 중단 및 핵시설 해체, 호르무즈 해협 즉각 재개방 등 요구. 한편, 사우디는 미국에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해제 및 협상장 복귀 촉구
- 이스라엘-레바논 워싱턴 휴전회담 개최. 이스라엘은 즉각적 휴전은 선긋기, 레바논은 인도적 위기 해소 조치 우선 요구
- 한편, IEA 4 월 석유시장보고서 중동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지난달 사상 최악의 공급차질 발생. IEA 사무총장은 원유 선물 가격에 위기상황이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언급

PPI 예상치 하회, 전쟁 영향 우려 있으나 시장은 낙관 우세

- 3 월 PPI MoM +0.5% YoY +4.0% 컨센 하회. 휘발유 가격 상승(+16%)이 상품물가 상승 주도했으나, 식품 가격 하락과 서비스 가격 정체가 유가 상승 충격 일부 상쇄. 근원 PPI 도 MoM +0.1% YoY +3.8% 컨센 하회
- 3 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95.8, 52 년 평균치 하회. 불확실성지수 92 로 대폭 확대
- 굴스비 총재는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2026 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고 발언
  다만, 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3 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며 국채금리는 하락 10Y 4.245%(-5.2bp), 2Y 3.745%(-3.6bp)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NVDA	엔비디아	+3.8%	AI 칩 수요 기대에10거래일 연속 상승, '23년 이후 최장기 랠리. 양자 AI 오픈소스 모델 '아이싱' 공개하며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시장 선점 시도. 한편 월요일 제기된 엔비디아의 PC 제조업체 인수설 공식 부인, 전일 인수 기대감에 상승했던 델(-2.8%)과 HP(-1.3%) 주가 약세
ORCL	오라클	+4.7%	블룸에너지(+24.0%)로부터 최대 2.8 GW 규모의 연료전지 전력 구매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 블룸에너지 측은 1.2 GW 규모의 연료전지 전력 용량에 대해 이미 계약 체결 및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 보도
NVO	노보노 디스크	+3.5%	오픈AI와 전략적 제휴 발표 소식에 주가 강세. 신약 개발 및 공급망 개선에 AI를 활용할 계획, 연말까지 완전 통합을 목표
AMZN	아마존	+3.8%	위성통신업체 글로벌스타(+9.6%) 인수 소식에 주가 강세. 아마존이 주당 $90 상당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 인수를 통해 아마존 레오(Leo)는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한 Direct-to-Device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게 됨
TSLA	테슬라	+3.3%	UBS의 투자의견 '매도'→'중립' 상향 조정 소식에 주가 강세, 목표주가 $352 유지. 한편 UBS는 포드(+4.5%)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매수' 상향, 목표주가 $15 제시
JPM	JP모건	-0.8%	1Q26 실적 발표. '26년 전사 순이자이익(NII)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주가 약세. 1분기 매출과 EPS는 전 사업 부문의 성장과 대손충당금 감소에 컨센 상회. 웰스파고(-5.7%)는 1분기 NII 컨센 하회하며 주가 약세. 씨티(+2.6%)는 1분기 순이익이 +42%YoY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호실적에 주가 강세
JNJ	존슨앤 존슨	+0.9%	1Q26 실적 발표. 1분기 매출, EPS 컨센 상회. 특허 만료된 스텔라라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다잘렉스(암 치료제)와 트렘피어(건선 치료제)가 실적 견인
BLK	블랙록	+3.0%	1Q26 실적 발표. 투자 수수료 수익 급증에 순이익 +46%YoY 급증. iShares ETF 부문 역대 최대 1 분기 실적 기록, $130B 순유입 달성. CEO는 사모 대출의 장기 전망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 밝힘